

Scripture of Truth Series

# 구원 받는 방법

How To Be Saved

이우진 지음





# How To Be Saved

By **Woojin Lee**

Korean Published by Permission  
2020 by The Scripture of Truth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 구원 받는 방법

편저자 | 이우진

펴낸이 | 이우진

편집디자인 | 김화영

초판발행 | 2020. 2. 28

펴낸곳 |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97-1번지  
센타프라자 제505호

전화 | 010-2322-1611

홈페이지 | <http://www.bbch.co.kr>

카페 | <http://cafe.naver.com/bbckjb>

(이 책의 PDF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ISBN 97911-86022-30-6

정가 2,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But I will shew thee that  
which is noted in the scripture of truth...

(Daniel 10:21a)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다니엘서 10:21a)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 Christ Jesus Publications.

# 구원 받는 방법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행 20:21) 성경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그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책을 통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구원받게 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 1.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속성이나 성품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

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롬 1:19-25)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알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만들어진 것을 통해 만든 분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볼펜 하나도 그것을 디자인하고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작고 너무나도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졌고 해서 우연히 존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든 창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히 3:4)고 말씀합니다.

창조자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자 자신일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자신을 창조하거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닌 창조물입니다. 성경은 모든 집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당신과 저를 포함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데도다.”(시 19:1) 맑은 밤에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볼펜 하나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별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 별들을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별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별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별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별들은 저와 당신보다 큼니다. 인간은 별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큰 존재가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별들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따라서 그 별들을 만든 존재도 인간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별들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별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들을 만든 존재는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별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별들은 아름답습니다. 따라서 별들을 만든 창조자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지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시 102:25) 성경은 온 우주뿐만 아니라 저와 당신이 모두 그분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의 창조물일 뿐 아니라 작품입니다.

온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얻은 결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스스로 생겨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들을 통해 창조자가 계시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단서를 따라 여러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 (1) 나와 같은 인간은 온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 (2)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존재한다.
- (3) 그분은 인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성경에 의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도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아무 목적도 없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든 창조물입니다.

## **2.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

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인인 첫째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내 안에는 첫째 사람인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아담이 죄를 짓고 가지게 된 그 마음(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간을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비록 책임은 인간에게 있지 않지만 인간이 죄인인 이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둘째 이유는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죄가 아닌 일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인, 강도, 강간 등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끔찍한 죄뿐 아니라 작은 죄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에 거슬러 자신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거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 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롬 2:15)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탐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거짓말쟁이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악한 생각을 안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마음속에 더러운 정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않는 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셋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죄가 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요 16:9)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지 않아도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아 죽게 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죄인이지만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요 16:9)라는 말씀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이유 즉, 죄인으로 태어났고, 실제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유인 죄인으로 태어난 데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책임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누군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인간은 죄를 짓고(작위)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부작위) 지옥에 가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 3. 자신은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나면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지옥에 던져지고 궁극적으로 불 호수에서 영원히 고통 받게 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 자리마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호수에 던져지더라.”(계 20:11-15)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뇌물을 주거나 잡히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뇌물도 통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운이 좋아서 죄를 짓고도 걸리지 않았고 들통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더 이상 그런 “행운”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가 드러나고 모든 죄가 처벌될 것입니다.

#### 4.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죄악에 빠진 이후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제를 회복할 방법, 즉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의 피를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바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히 9:22)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레 17:11)

구약성경이 동물 제사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의 피를 대신하여 동물이 피를 흘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피는 죄를 없애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히 10:4)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동물의 피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능력이나 효능도 없는 일을 왜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동물의 피가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실재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제거하는 실재적인 능력을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엡 1:7)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골 1:14)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졌느니라.”(엡 2:13)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음이니라.”(골 1:20)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행 20:2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에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 5.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과 제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며(롬 6:23)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히 9:27).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짓값을 치르러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저의 짓값을 직접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과 제가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짓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짓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만약 예수님께서서 인간의 짓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면 결국 모든 사람의 짓값이 치러진 것이고, 그렇다

면 자신의 죄값도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법에서 “대리(代理)”에 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만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생이 형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형의 허락을 받아 매도(판매)하는 것은 대리 행위를 한 것입니다. 동생이 계약을 했지만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계약으로 인해 생기는 이득은 형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이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동생이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대리 행위를 해서 형의 부동산을 팔았다면 이는 무권대리(無權代理)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권대리는 형(본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비록 대리권 없이 계약을 했지만 형이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니 상당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을 인정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추인(追認)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내가 대리를 부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대리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나에게 많은 이득이 올 것으로 예상하여 비록 무권대리행위지만 그 대리 행위를 인정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생겨 본인이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법이 아닌 민법의 개념이지만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리행위와 추인이라는 개념을 예로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천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저와 당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대리하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법률행위는 오직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즉 추인한 사람들에게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

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받아들이신 사람들에게만 죄 용서라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받아들이신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2)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모두 치러졌지만 오직 받아들이는 자들, 즉 믿는 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합당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애매하고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면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대부분의 종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법률은 내용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구원을 확정하는 법률로서 적합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성경이 구원의 방법으로 믿음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도 쉽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합니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을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낸다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잔인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선

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선행 없이,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아무도 짓값을 치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구원방법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선물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거나, 거절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눅 9:25)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언젠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면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간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긴급한 일도 없습니다. 당신의 혼보다 더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구원 받으십시오. 너무 늦어 돌이킬 수 없기 전에 구원받으십시오.

**\* 지은이 : 이우진**

이우진 목사는 1974년 4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여의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펜사콜라성경신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균관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1990년 7월 중순 호주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1994년부터 문서사역을, 그리고 1997년부터 교회와 신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우진 목사는 펜사콜라성경신학원과 킹제임스성경신학원에서 10여년에 걸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월간 강단의거성과 도서출판 킹제임스에서 편집장으로, 그리고 진리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으며, 50여 권의 책을 번역하거나 저술했습니다. 그는 2007년에 도서출판 진리의성경을, 그리고 2014년에 분당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www.bbch.co.kr](http://www.bbch.co.kr)